

리버데일 한의원

한 의사 : 임 베로니카
3263 Johnson Ave.
Bronx, NY 10463
(718)796-0267/ 3636

홍표 홍침대

장수돌침대 NJ미건의료기
리치필드 한마트 내
(201)945-9944(B)527-8040(C)

중앙 장의사

하 봉 호
(718) 353-2424

통증 중재의학

이한식 제통전문병원

신경 차단술
요통 허리 디스크 및 각종통증
(718) 224-1600
43-24220Pl.Bayside,NY 11361

Edward D Jamis, Jr 장 의 사

조용하고 주차, 교통편리
베이사이드 노던 209가
(718) 224-2390
(888) 224-6088

First American

Landing 부동산 매매에서
모개지대출까지 주택상가
사업체) 정영오 루가
201-461-9999
917-232-8890

뉴저지 동해수산

EastSeafood Restarant
445 Grand Ave
PalisadsPark, NJ07650
Tel.201-461-4447

브롱스 소망아일랜드

수직식품 건너편, Food
Town 앞, 주차장 완비
매주 일요일은 쉽니다
(718) 329-1678

맥 한의원

한 의사 : 김 글라라
침, 한약으로 만성병 치료
224E 204St Bronx
(718) 563-1209

뉴욕라이프보험

김 여경(헤레나)
(203) 629-0266(O)
Fax (203) 629-9073
각종 보험, 투자

웨스트체스터 카운티
Century 21 Royal
부동산 Sales,Rental
Mija (세실리아) Son

(914)310-6990(C)

아리랑 여행사

ARIRANG TRAVEL SERVICE
INC.
대표 : 김 윤 환(Francisco)
영 희(Julie)
엠포아이스테이트빌딩#22층
1-212-563-3350
1-800-223-6225

김영관 회계사무소

● 개인/법인 세무보고
● 회사설립 사업면허
● 공증 번역 사업체
● 중업원 상해보험
(718)961-4024, 4022

김진상 3S 교정치과

아동 및 성인 교정 전문
◎ 뉴욕,플러싱 : (718) 460-1802
◎ 북부 NJ : (201) 840-1123
◎ 중부 NJ : (732) 548-4848
김 진상 (빈센트)

핑크 미용실

매주 일요일(주일)은 쉽니다.
3135 Grand Concourse
(between 204 & 205 St.)
Tel. (718) 563-6997

정일현(스테파노)치과

콜롬비아 대학교 졸업
엘모어스트(시립병원 앞)
(718)426-4343, (주자문비)
베이사이드 718-352-3434

광고모집

광고모집

뉴욕정비(자동차)

정우진, 브롱스
2801 Webster Ave
(718) 295-3252

김태복 통증 한의원

통증 전문 39 W 32 St.
Suite300 맨하탄 (212)
947-8382(B) 뉴저지 (201)
592-5514(H)

HOPE AGENCY INC.

희망 보험사
가게, 빌딩, 주택, 자동차
트럭, 벤, 생명, 교육, 은퇴
(718) 961-5000 김 모세

김철 공인 회계사

Young&Jullan, LLC
150-05 노던 (150가)
2F1 (플러싱)
(718)888-1217

한미 가톨릭 연방 신용조합

월-금 8:00 AM-4:30 PM
일 9:00 AM-2:00 PM
(718)353-7676
144-19 33rd Ave Flushing, NY 11354

리사 휴대폰

국내무제한, 한국5시간
월 40\$ (세금포함)
(718)205-1200 Kim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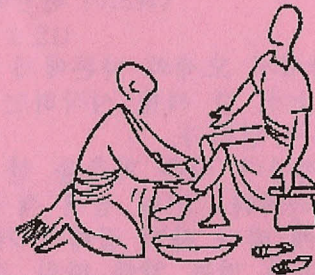
성 목요일

2011,4,21

북 부 뉴 욕

성 남요한 한인 가톨릭교회

Korean R.C. Church of St. John Nam



온 몸이 깨끗하니 발만 씻으면
그만이다. (요한 13, 1-15)

주임 신부 : 남 시몬(해근)

부주임신부 : 이 안드레아(환규)

본당 수녀 : 김 소피아(마리아)

교회 시간표

주일 미사 : 오전 8시, 11시(본미사), 12시 30분(학생미사)

평일 미사 : 매일 오전 9시, 수요일 오후 8시

고백 성사 : 주일 11시 미사 전.후

주일 학교 : 주일 오전 11시

한글 학교 : 주일 오전 10시

예비자교리 : 주일 오전 9시 30분

병자봉성체 : 매월 첫 금요일

유아 영세 : 매월 둘째 토요일(한달전 신청)

3663 White Plains Road Bronx, NY 10467

사무실 : (718) 231-2414

수녀님 : (914) 265-0117

회 장 : (914) 707-3182

Fax : (718) 405-0053



주님 만찬 성목요일

ㄸ 입당송

(갈라 6, 14)

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랑하리라.

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며 생명이요 부활이시니,

우리는 그분을 통하여 구원과 자유를 얻었도다.

<대영광송을 바칠 때 종을 치고 부활 성야까지 종을 치지 않는다.>

† 제1독서

(파스카 만찬에 관한 계명)

탈출기의 말씀입니다.

(12, 1 - 8. 11 - 14)

그 무렵 ¹주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. ²“너희는 이달을 첫째 달로 삼아, 한 해를 시작하는 달로 하여라. ³이스라엘의 온 공동체에게 이렇게 일러라.

‘이달 초월홀날 너희는 가정마다 작은 가축을 한 마리씩, 집집마다 작은 가축을 한 마리씩 마련하여라. ⁴만일 집에 식구가 적어 짐승 한 마리가 너무 많거든, 사람 수에 따라 자기 집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과 함께 짐승을 마련하여라. 저마다 먹는 양에 따라 짐승을 골라라. ⁵이 짐승은 일 년 된 흠 없는 수컷으로 양이나 염소 가운데에서 마련하여라. ⁶너희는 그것을 이달 열나흘날까지 두었다가, 이스라엘의 온 공동체가 모여 저녁 어스름에 잡아라. ⁷그리고 그 피는 받아서, 짐승을 먹을 집의 두 문설주와 상인방에 발라라. ⁸그날 밤에 그 고기를 먹어야 하는데, 불에 구워, 누룩 없는 빵과 쓴나물을 곁들여 먹어야 한다.

¹¹그것을 먹을 때는, 허리에 띠를 매고 발에는 신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쥐고, 서둘러 먹어야 한다. 이것이 주님을 위한 파스카 축제다. ¹²이날 밤 나는 이집트 땅을 지나면서, 사람에서 짐승에 이르기까지 이집트 땅의 만아들과 만배를 모조리 치겠다. 그리고 이집트 신들을 모조리 멸하겠다. 나는 주님이다. ¹³너희가 있는 집에 발린 피는 너희를 위한 표지가 될 것이다. 내가 이집트를 칠 때, 그 피를 보고 너희만은 거르고 지나가겠다. 그러면 어떤 재앙도 너희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.

¹⁴이날이야말로 너희의 기념일이니, 이날 주님을 위하여 축제를 지내라. 이를 영원한 규칙으로 삼아 대대로 축제일로 지내야 한다.’”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● 하느님 감사합니다.

ㄸ 화답송 (시편 116(115). 12 - 13. 15와 16ㄷㄷ. 17 - 18 ● 1코린 10. 16)

●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를 나누어 마시는 것이네.

1. 내게 베푸신 모든 은혜, 무엇으로 주님께 갚으리요?

구원의 잔 받들고, 주님의 이름 부르리라. ●

2. 주님께 성실한 이들의 죽음이, 당신 눈에는 참으로 소중하네.

저는 당신의 종, 당신 여종의 아들이오니,

당신이 제 사슬을 풀어 주셨나이다. ●

3. 주님께 감사 제물 바치며 당신 이름 부르나이다.

제가 번제를 드려도 주님 마음에 들지 않으시리이다.

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, 주님께 나의 서원을 채우리라. ●

† 제2독서 (여러분은 먹고 마실 적마다 주님의 죽음을 전하는 것입니다.)

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1서 말씀입니다.

(11, 23 - 26)

형제 여러분, ²³사실 나는 주님께에서 받은 것을 여러분에게도 전해 주었습니다. 곧 주 예수님께서는 잡히시던 날 밤에 빵을 들고 ²⁴감사를 드리신 다음, 그것을 떼어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. “이는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.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.” ²⁵또 만찬을 드신 뒤에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말씀하셨습니다. “이 잔은 내 피로 맺는 새 계약이다. 너희는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.”

²⁶사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, 여러분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적마다 주님의 죽음을 전하는 것입니다.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● 하느님 감사합니다.

ㄸ 복음 환호송

(요한 13, 34)

● 그리스도님,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.

○ 주님께서 말씀하신다.

“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. 서로 사랑하여라.

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.” ●

† 복음 (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.)

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. ● 주님 영광받으소서.

(13, 1 - 15)

파스카 축제가 시작되기 전, 예수님께서서는 이 세상에서 아버지께로 건너가실 때가 온 것을 아셨다. 그분께서는 이 세상에서 사랑하신 당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.

²만찬 때의 일이다. 악마가 이미 시몬 이스카리옷의 아들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을 불어넣었다. ³예수님께서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당신 손에 내주셨다는 것을, 또 당신이 하느님에게서 나왔다가 하느님께 돌아간다는 것을 아시고, ⁴식탁에서 일어나시어 겹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들어 허리에 두르셨다. ⁵그리고 대야에 물을 부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고, 허리에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셨다.

⁶그렇게 하여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자 베드로가, “주님, 주님께서 제 발을 씻으시렵니까?” 하고 말하였다.

⁷예수님께서서는 “내가 하는 일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깨닫게 될 것이다.” 하고 대답하셨다. ⁸그래도 베드로가 예수님께 “제 발은 절대로 씻지 못합니다.” 하니,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.

“내가 너를 씻어 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함께 아무런 몫도 나누어 받지 못한다.”

⁹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였다. “주님, 제 발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십시오.”

¹⁰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. “목욕을 한 이는 온몸이 깨끗하니

발만 씻으면 된다. 너희는 깨끗하다. 그러나 다 그렇지 않다.”¹¹ 예수님께서서는 이미 당신을 팔아넘길 자를 알고 계셨다. 그래서 “너희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.” 하고 말씀하신 것이다.

¹²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다음, 겹옷을 입으시고 다시 식탁에 앉으셔서 그들에게 이르셨다. “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깨닫겠느냐? ¹³ 너희가 나를 ‘스승님’, 또 ‘주님’ 하고 부르는데,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. 나는 사실 그러하다. ¹⁴ 주님이며 스승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었으면,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어야 한다. ¹⁵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하라고, 내가 본을 보여 준 것이다.”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●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.

발씻김 예식



제1따름노래

(요한 13, 4. 5. 15)

- 주님께서서는 식탁에서 일어나시어, 대야에 물을 부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도다. 이렇게 그들에게 본을 보여 주셨도다.

제2따름노래

(요한 13, 12. 13. 15)

- 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저녁을 잠수신 뒤, 그들의 발을 씻어 주시며 이르셨도다. “주님이며 스승인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깨닫겠느냐?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 주었다.”

제3따름노래

(요한 13, 6. 7. 8)

- “주님, 주님께서 제 발을 씻으시렵니까?”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도다. “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함께 아무런 몫도 나누어 받지 못하리라.”

1. 주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자 베드로가 말하였도다. ●
2. “내가 하는 일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깨닫게 되리라.” ●

제4따름노래

(요한 13, 14)

- “주님이며 스승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 주었으니,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어라.”

제5따름노래

(요한 13, 35)

- “너희가 서로 사랑하면,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게 되리라.”

1. 주님께서 당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도다. ●

제6따름노래

(요한 13, 34)

- 주님께서 말씀하신다. “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. 서로 사랑하여라.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.”

제7따름노래

(1코린 13, 13)

“너희 안에 믿음과 희망과 사랑 이 세 가지가 있어야 한다. 그 가운데 으뜸은 사랑이다.”

1. “이제 믿음과 희망과 사랑, 이 세 가지가 있다. 그 가운데 으뜸은 사랑이다.” ●

<보편지향 기도>를 바친다.

성찬의 전례

영성체송

(1코린 11, 24 - 25)

주님께서 말씀하신다. “이 빵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요, 이 잔은 내 피로 맺는 새 계약이다. 너희는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.”

	미사해설	제1독서	제2독서	신자기도
성목요일	홍 승 표	김 철 중	김 미 수	홍 명 숙
성금요일	민 경 구	이 창 섭	이 종 숙	신 부 님

전례

수난복음(금요일) : 최일환, 노경수, 봉 헌 : 윤구식 가족(목)

성가

- 입당 : 지극한 근심에 (성가 117)
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(성가 325)
- 봉헌 : 너그러운 받으소서 (성가 214)
거룩하시도다 (성가 327)
신앙의 신비여 (373)
아 멘 (성가 378)
주님의 기도 (성가 387)
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(성가 389)
하느님의 어린양 (성가 328)
- 성체 : 주여 어서 오소서 (성가 154)
믿음 소망 사랑 (176)
- 파견 : 십자가 바라보며 (성가 127)

성체를 옮겨 모심

성체조배(참고용)

지향

시작성가 (주님은 우리 위해(119))

성호경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. 아멘.

찬미가

- 임금님 높은것발 앞장서가니 십자가 깊은신비 빛을받하네
사람을 내신분이 사람되시어 십자가 형틀위에 달려계시네
- 주님은 십자가에 높이달리어 예리한 창끝으로 찔리셨으니
우리의 더러운죄 씻으시려고 피와물 송두리째 쏟으셨도다

- 광채로 번쩍이는 영광된 나무 임금님 붉은 피로 물들었어라
- 고귀한 나무줄기 간택됐으니 기록한 가지들도 적혀주소서
- 지극히 복되고도 복된 나무여 그 위에 구원대가 달려있으니
- 주님의 몸값다는 저울이 되어 지옥의 전리품도 함께 달았네
- 거룩한 제단이며 제물이시여 수난의 영광보고 하례하오니
- 생명이 죽음마저 당하셨기에 죽음이 새 생명을 돌려주었네
- 유일한 우리 희망 십자가 나무여 수난의 귀한 때가 다가왔으니
- 열심한 신자에게 은총주시고 죄인의 모든 허물 씻어주소서
- ◎ 구원의 원천이신 삼위일체여 천사들 소리 맞춰 찬미하오니
- 십자가 그신비로 구원된 우리 영원히 무궁토록 지켜주소서.
- 아멘.

✠ 시편 기도

(51(50), 3~21)

◎ 하느님께서서는 당신의 친 아드님 마저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 주셨도다.

- 주 하느님, 주님 자애에 따라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. 주님의 크신 자비에 따라 저의 죄악을 지워 주소서.
- 저의 죄에서 저를 말끔히 씻으시고 저의 잘못에서 저를 깨끗이 하소서.
- 저의 죄악을 제가 알고 있으며 저의 잘못이 늘 제 앞에 있나이다.
- 주님께, 오로지 주님께 잘못을 저지르고 주님 눈에 악한 짓을 제가 하였나이다.
- 판결을 내리시더라도 주님께서서는 의로우시고 심판을 내리시더라도 주님께서서는 결백하시리이다.
- 정녕 저는 죄 중에 태어났고 허물 중에 제 어머니가 저를 배었나이다.
- 주님께서서는 가슴속의 진실을 기뻐하시고 남모르게 지혜를 제게 가르치시나이다.
- 우슬초로 제 죄를 없애 주소서. 제가 깨끗해지리이다. 저를 씻어 주소서. 눈보다 더 희어지리이다.
- 기쁨과 즐거움을 제가 맛보게 해 주소서. 주님께서 부수셨던 뼈들이 기뻐 뛰리이다.
- 저의 허물에서 주님 얼굴을 가리시고 저의 모든 죄를 지워 주소서.
- 하느님, 깨끗한 마음을 제게 만들어 주시고 굳건한 영을 제 안에 새롭게 하소서.
- 주님의 면전에서 저를 내치지 마시고 주님의 거룩한 영을 제게서 거두지 마소서.
- 주님 구원의 기쁨을 제게 돌려주시고 순종의 영으로 저를 받쳐 주소서.
- 제가 악인들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쳐 죄인들이 주님께 돌아오리이다.
- 죽음의 형벌에서 저를 구하소서, 하느님, 제 구원의 하느님. 제 허가 주님의 의로움에 환호하오리다.
- 주님, 제 입술을 열어 주소서. 제 입이 주님의 찬양을 널리 전하오리다.
- 주님께서서는 제사를 즐기지 않으시기에 제가 번제를 드려도 주님 마음에 들지 않으시리이다.

- 하느님께 맞갖은 제물은 부서진 영. 부서지고 꺾인 마음을 주 하느님, 주님께서는 업신여기지 않으시나이다.
- 주님의 호의로 시온에 선을 베푸시어 예루살렘의 성을 쌓아 주소서.
- 그대에 주님께서 의로운 희생 제물을, 번제와 전번제를 즐기시리이다. 그대에 사람들이 주님 제단 위에서 수소들을 봉헌하리이다.
- ◎ 하느님께서서는 당신의 친아드님마저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 주셨도다.

✠ 독서(사랑은 죽음처럼 강하다.)

✠ 성가(가톨릭 성가 168 또는 169 또는 기타 성체 성가)

✠ 복음(요한 17, 1-26)

(마음속으로 주님의 수난에 동참하는 시간을 갖는다. : 5분 정도)

✠ 묵상

성 토마스의 성체 찬미가

- 옳디어 절하나이다. 눈으로 보아 알 수 없는 하느님, 두 가지 형상 안에 분명히 계시오나, 우러러 뵈올수록 전혀 알 길 없삽기에, 제 마음은 오직 믿을 뿐이옵니다.
- 보고 맛보고 만져 봐도 알 길 없고, 다만 들음으로써 믿음 든든해 지오니, 믿나이다, 천주 성자 말씀하신 모든 것을. 주님의 말씀보다 더 참된 진리 없나이다.
- 십자가 위에서는 신성을 감추시고, 여기서는 인성마저 아니 보이시나, 저는 신성, 인성을 둘 다 믿어 고백하며, 뉘우치던 저 강도의 기도 올리나이다.
- 토마스처럼 그 상처를 보지는 못하여도, 저의 하느님이심을 믿어 의심 않사오니, 언제나 주님을 더욱더 믿고 바라고 사랑하게 하소서.
- 주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성사여, 사람에게 생명 주는 살아 있는 빵이여, 제 영혼 당신으로 살아가고, 언제나 그 단맛을 느끼게 하소서.
- 사랑 깊은 펠리칸, 주 예수님, 더러운 저, 당신 피로 씻어 주소서. 그 한 방울만으로도 온 세상을 모든 죄악에서 구해 내시리이다.
- 예수님, 지금은 가려져 계시오나 이렇듯 애타게 간구하오니, 언젠가 드러내실 주님 얼굴 마주 뵈고, 주님 영광 바라보며 기뻐하게 하소서.
- ◎ 아멘.

<또는 가톨릭 성가 195, "천주 성자 예수 흠송합니다">

✠ 성가(가톨릭 성가 195, "천주 성자 예수 흠송합니다.")

✠ 묵주기도(고통의 신비)

✠ 청원 기도

<다른 지향으로 기도할 수 있다.>

✠ 마침성가(가톨릭 성가 123, "십자가 지고 가시는")